

목간을 통해 본 고대의 일상

2017. 11. 02.

윤선태 *

1. 목간이란 무엇인가
2. '다면목간' 문화
3. 목간과 문서행정
4. 세금의 꼬리표, 하찰목간
5. 궁궐의 경비와 궁중의 일상

1. 목간이란 무엇인가

목간은 문자를 기록하기 위해 나무로 만든 서사書寫 재료로서 종이 발명되기 이전에 널리 사용되었다. 특히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내구성도 좋은 나무의 특징 덕분에 목간은 종이 발명된 뒤에도 매우 오랫동안 서사 재료로 애용되었다. 또 나무는 여러 가지 형태로 가공할 수 있기 때문에, 납근형 목간처럼 특이한 형태로 만들고 거기에 주문呪文을 써 넣어 주술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한국의 고대 목간에는 글자를 반복적으로 연습한 흔적인 단순 메모부터 국가의 복잡한 회계장부에 이르기까지 각종 기록물이 다양하게 확인된다. 목간의 목서墨書는 당대인의 유품으로 기록되었으므로 그 내용이나 형태, 출토지 등을 통해 제작에서 폐기에 이르기까지 '목간의 일생(life cycle)'을 추적할 수 있다. 따라서 목간은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대인의 일상과 문자 생활에 관한 다양한 정보도 알려준다.

목간은 재질의 특성상 썩기 쉬워 저습지라는 특수한 조건에서만 발굴된다. 고대의 연못이나 우물, 도랑 속에는 진흙이 천 년 이상 썩어 썩여 산소가 차단되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 썩 부패되는 나무라도 그 안에서는 썩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물속 뺨 층에서 천 년도 더 된 고대의 목간이 처음 모습 그대로 발견된다. 유기물이 살아남는 이러한 저습지의 보존 환경에 최근 고고학자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신중한 발굴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1980년대에는 50여 점에 불과했던 목간 출토 수가 2017년 현재 700여 점에 이를 정도로 그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우리도 중국이나 일본처럼 고대의 우물이나 하수 폐기 시설에서 목간 수만 점이 한꺼번에 발굴될 날이 그리 멀지 않을 듯하다.

*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 서울대 대학원 국사학과 졸업(문학박사).

『한국고대중세고문서연구』(2000, 서울대출판부), 『목간이 들려주는 백제이야기』(2007, 주류성), 『신라의 발견』(2008, 동국대출판부), 『한국고대사산책』(2017, 역사비평사)

2. ‘다면목간’ 문화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목간은 평양 일대의 한대漢代 ‘낙랑군樂浪郡’ 유적에서 출토되었다. 1990년대 북한이 평양시 낙랑구역 일대를 발굴할 때 나온 목간인데, 기원전 45년 낙랑군과 그 소속 현의 호구가 통계되어 있는 장부용 목간, 『논어』를 필사한 뒤 이를 끈으로 묶은 서책용 죽간 등이다. 한국의 고대사회는 이처럼 한사군을 통해 매우 일찍부터 중국의 발달된 한자 문화를 접하였다. 고구려, 백제 등 한국의 고대국가는 중국 군현 세력에 효과적으로 저항하기 위해서 중국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여 국가 체제를 확립하였다. 이때 중국의 문서 행정 시스템도 수용하였다. 삼국은 또한 경전에 해박한 박사를 두고 식자층을 육성하는 태학太學을 설립하였다. 이후 한자를 읽고, 쓰고, 문서와 장부를 만들 수 있는 이들이 상당수 배출되었다.

현재 발굴된 한국고대목간의 대부분은 신라목간이다. 경주의 안압지, 월성해자, 황남동 376번지유적과 같은 신라의 도성유적을 비롯해, 하남 이성산성, 함안 성산산성 등 지방의 관아유적에서도 목간이 발굴되었다. 신라목간은 백제목간에 비해 출토점수도 많고, 목간출토 유적이 시대별로, 또 지역별로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신라목간문화의 변천과정이나, 목간제작이나 서사방식에 나타나는 지역별 차이까지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월성해자 출토 목간(이하 ‘월성해자목간’으로 약칭)과 안압지 출토 목간(이하 ‘안압지목간’으로 약칭)은 그 출토 유적의 시기적 선후가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에 신라 문자문화의 계기적 변화와 발달을 유추할 수 있는 지표 유물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월성해자목간은 7세기 중반 이전, 안압지목간은 7세기 후반 이후를 각각 제작연대의 하한과 상한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월성해자목간과 안압지목간 사이에 나타나는 목간의 형태, 제작방법, 서체, 운필법, 기록내용상의 차이점을 통해 신라 문자생활의 성숙과정을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목간의 형태상에서 양자에는 큰 차이점이 확인된다. 안압지목간에 비해 월성해자목간에는 단면이 4각형인 고觚 형식의 다면목간이나 별다른 가공 없이 나무의 껍질만 벗긴 채 사용한 원주형圓柱形 목간의 비중이 매우 높다. 목간 잔편을 포함하여 월성해자에서 출토된 25점의 전체 목서목간 중 다각형, 원주형 목간이 11점이나 된다. 특히 원주형 목간 중에는 6행에 걸쳐 목서된 것도 확인되었다. 이에 필자는 한국 고대 삼국시기의 초기목간문화의 특징을 ‘다면목간문화’로 통칭한 바 있다. 이는 일본의 고대 목간문화와 구분되는 한국 고대 목간문화의 독특한 특징 중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김해 봉황동과 인천 계양산성에서 발굴된 신라의 ‘논어 목간’으로 볼 때, 늦어도 7세기 무렵에는 지방 사회에서도 학생들이 활발하게 중국 고전을 학습하였다. 계양산성에서 출토된 목간은 단면이 오각형인 막대 형태로 이루어진 다면목간인데, 상하단이 파손되었다. 현존 길이는 14cm이고, 각 면의 폭은 1.5cm이다. 다섯 면에 『논어』 「공야장公冶長」 편이 적혀 있는데, 내용의 전후 연결을 고려하면 본래 길이는 1m 정도의 매우 긴 목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면목간은 어떤 면의 글자를 읽거나 외울 때 다른 면의 글자가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졌다. 이런 모양 때문에 이미 중국 한대부터 다면목간은 초학자初學者의 암기 학습용으로

로 널리 사용되었다. 또 1m에 달하는 목간의 길이는 『논어』 경전의 권위와 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각적 효과를 노린듯하다. “추운 겨울이 와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기백을 알 수 있다” 는 『논어』의 구절이 7세기 신라 무인들의 좌우명으로 널리 유행한 일도 당시 『논어』가 신라 사회에 널리 읽혔음을 잘 말해준다.

3. 목간과 문서행정

장부 정리용 목간들은 그 폭과 길이가 대체로 4.5×30cm 안팎의 일정한 크기로 제작되었다. 장부의 기재 양식은 목간에 가로줄을 그어 2~3 단으로 나누고 각 단에 2~3행으로 할서 割書하였다. 여러 개의 목간을 끈으로 편철할 수 있도록 상단 중앙에는 구멍을 뚫어 놓았는데, 오늘날 링으로 묶은 여러 장의 메모카드와 유사하다. 목간이 이처럼 형태적으로 규격화된 것은 목간 제작과 문서 서사書寫가 규율 통제되었음을 뜻한다. 관료들은 일정한 크기의 목간을 미리 제작해 두고, 이를 이용하여 문서와 장부를 작성 편철하였다고 생각된다.

관청에서는 방대한 양의 문서를 생산했기 때문에 이들을 분류하여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장치가 필요하였다. 권축卷軸에 말아 놓는 두루마리 종이 문서의 경우, 그 문서의 제목을 권축에 기록하여 문서의 표지標識로 삼았는데, 대표적인 방법이 제첨축題籤軸이다. 제첨축은 권축의 두부頭部를 넓적하게 만들어 그곳에 해당 문서의 제목을 적은 것이다. 종이 문서가 가느다란 권축에 말려 있더라도 권축 두부에 써 놓은 문서 제목은 그대로 드러나므로 표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제첨축을 활용한 문서 분류 방식이 고대 일본에서만 확인되었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부여 쌍북리 신성전기 창고 부지에서 백제의 제첨축이 출토되었다. 이 발굴로 고대 동아시아 서사 문화에서 한국고대목간문화가 차지하는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신라에서도 관료들과 관청 사이에 문서 행정 시스템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달해 있었다. 문서 행정에는 중국의 한자를 사용했지만, 그렇다고 한문은 아니었다. 신라인은 순수 한문을 체득해 나가면서, 동시에 한자를 빌려 자신의 말을 표현하는 새로운 문자 체계인 이두를 창안하였다. 고구려에서도 문장의 끝에 ‘之(다)’ 를 적어 종결형 어미를 표현했는데, 7세기 중반 신라의 문서 목간들을 살펴보면 고구려식 표기법을 더욱 발전시켜 과거형 어미(在), 존칭형 어미(賜) 등도 표현하였다. 예를 들어 우리말로 ‘이루다(成之)’ 라는 동사 기본형에 과거 시제를 결합하여 ‘이루었다(成在之)’ 로, 존칭형 어미를 붙여 ‘이루셨다(成賜在之)’ 로 기록하는 방식이다. 신라인은 이제 자신의 말을 그대로 완벽하게 표기했던 것이다.

신라인은 한문을 공부할 때 글자 사이사이에 구두점과 해석의 순서 등 번역을 위한 부호나 구절을 기입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말 어간(成 : 이루)은 한 자의 훈을 그대로 가져다 쓰고, 한문에 없는 우리말 어미(賜 : 시 / 在 : 었 / 之 : 다)는 한자의 음을 빌려와 표기하는 방식으로 이두를 개발하였다. 이는 고대 일본의 ‘가타카나片假名’ 와 ‘오코토점コト点’ 의 기원으로서, 고대 동아시아의 한자 수용과 변용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4. 세금의 꼬리표, 하찰목간

고대에는 세금을 현물로 중앙에 납부하였다. 이때 관아에서는 납세자를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 납부자의 소속 지명, 이름, 세액 등을 기록한 꼬리표를 나무로 제작하여 세금 꾸러미에 매달았다. 이 꼬리표를 ‘하찰荷札’, 즉 짐표라고 부른다. 세금은 최종 목적지인 중앙의 수납처까지 장시간 이동하기 때문에 꼬리표에는 내구성이 좋은 나무가 애용되었다. 하찰은 대체로 3×20cm 정도의 가늘고 긴 형태인데, 목간 상단에 구멍을 뚫거나 상단 좌우에 각각 V자 홈을 파서 끈으로 묶어 세금에 매달 수 있도록 가공하였다. 때로는 세금을 포장한 끈이나 쌀과 같은 곡식 용기에 꽂아 넣기 위해 하단을 뾰족하게 침형으로 깎아 놓은 것도 있다.

경남 함안 성산산성에서 300점 이상 출토된 하찰은 6세기 후반 무렵 신라의 각 지방에서 함안으로 보낸 세금에 매달았던 하찰인데, 당시 신라의 국가 유통망과 생산 수취구조를 알려준다. 이 하찰들에 기록된 촌명村名은 오늘날의 영주, 안동, 예천, 의성 등이며, 이곳들은 모두 낙동강의 수계水系에 위치한 지역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낙동강 수로를 통해 쉽게 함안에 도달할 수 있다. 함안은 당시 ‘아라가야(안라국)’가 있던 곳이다. 성산산성에서 발견된 하찰은, 신라가 이들 지역을 차지한 뒤 백제의 가야 진출을 봉쇄하기 위해 낙동강 수로를 활용하여 식량 등 전략 물자를 함안으로 집중시켰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6세기 이후 신라와 백제는 가야 지역을 서로 차지하려고 격돌하였으며, 그 최종 승자는 신라였다. 신라는 529년에 탁기탄국, 532년에 금관가야(경남 김해), 530년대 후반에는 탁순국을 차례로 병합하였다. 상황은 신라에 유리하게 돌아갔다. 백제는 신라의 진격 앞에 속수무책인 채 제대로 대응 한번 못하였다.

이처럼 신라가 가야 전선에서 백제에 밀리지 않고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성산산성의 신라 하찰은 그 배경의 하나를 분명히 알려준다. 백제가 가야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소백산맥이라는 자연적 장애물을 넘어가야 했다. 이에 비해 신라는 자신들이 장악한 낙동강 중상류 지역의 물자를 낙동강 수로를 통해 훨씬 수월하게 가야 전선으로 집중시킬 수 있었다. 결국 신라가 가야 전선에서 백제보다 전략적 우위를 점한 배경은 낙동강의 조운漕運 시스템을 활용하여 노동력과 물자를 원활히 조달하는 일 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다시 성산산성에서 출토된 하찰 목간의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이 하찰들 중에는 쥐의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는 것도 있다. 이는 각지의 세금이 조창漕倉으로 이송되고 나서 일정 기간 짐적되었다가 함안으로 운반되었음을 말해준다. 또 하찰에는 “도둑이 든 탓에 세금을 잃어버려 새로 목간만 제작하였다”는 내용도 확인된다. 이 목간은 당시 국가의 세금 수송을 노리는 도적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일차적으로 알려주지만, 그 외에도 함안에 세금이 도착하면 일일이 개별인의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절차가 있었음을 알게 해준다. 이는 국가에서 이들 납세자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호적 대장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신라촌락문서」(695)보다 130년이나 앞선 시점에 이미 중앙정부에서 수취 목적으로 각 지역의 주민을 조사 등록했음을 의미한다.

중앙의 행정 관서에서는 주, 군 단위에서 집계되어 보고된 문서를 토대로 전국의 인구수를 계산 정리하고, 각 지방행정 단위의 경제력을 파악하였다. 촌락문서가 바로 그러한 문서 중의 하나이다. 중앙의 세금 수납 담당 부서인 조부調府나 창부倉部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과 부역을 부과하고, 국가의 여러 가지 수취 정책을 수립했을 것이다.

5. 궁궐 경비와 궁중의 일상

안압지에서 출토된 목간 중에는 신라 동궁의 여러 문 이름과 그 아래 한둘의 인명을 기록한 ‘문호門號’ 목간이 있는데, 왕궁의 경비 시스템을 알려 준다. 신라에서는 애초 경비 인원을 궁문별로 나누고 그 이름을 목간에 기록해 놓았다. 그런 다음 그날그날 근무의 실제 여부를 직접 감독 검사한 뒤, 근무를 서는 경비원의 이름 아래 감독자가 ‘在(있었음)’를 기록하였다. 이 목간은 이렇게 경비 상황을 기록하는 용도로서 뿐만 아니라 경비원에게 지급하는 식량 청구서로도 활용되었다. 문호 목간으로 미루어 신라의 동궁은 사방문四方門을 갖춘 담장으로 둘러 싸여 있으며, 그 내부에는 중문重門과 내부 담장이 구비된 우궁隅宮 등의 별도 부속 건물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최근 안압지 주변의 담장 발굴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었다. 또 동궁의 경비를 위해 궁문의 개폐에 사용 했던 자물쇠와 열쇠도 안압지에서 출토되었는데, 그것들과 함께 키홀더 용도의 목간도 나왔다. 이를 통해 신라에서 자물쇠(鑰), 열쇠(金 ; 쇠) 등 신라식 한자나 이두식 어휘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월성 해자와 안압지에서는 의약 처방이 기록된 목간도 발굴되었다. 이 목 간들로 짐작건대, 신라에서는 6-7세기부터 중국의 의서醫書를 학습했으며, 약재 효용과 조제량을 숙지하고서 의약 처방을 내렸다. 신라 왕궁의 후원인 안압지에서 출토된 꼬리표 목간에서는 ‘가오리(加火魚)’, ‘식해(醢)’ 등과 같은 수산 가공물이나 발효 식품의 이름이 많이 확인된다. 신라 왕실은 수산 가공물을 ‘웅瓮’이나 ‘부缶’로 불리는 크고 작은 단지에 담아 창고에 보관했는데, 삭히는 음식인 경우에는 숙성하는 발효 기간을 고려하여 품목과 제조 일자를 명확히 기록한 꼬리표 목간을 단지에 매달았다.

조선시대에도 서해안 지역에서는 소금이 풍부하게 생산되는 덕에 염장 식품인 젓갈류가 많이 만들어졌고, 동해안 지역에서는 소금이 부족하여 곡물을 섞어 삭힌 수산물 식해류가 많이 만들어졌다. 안압지 출토 목간에 ‘식해(醢)’ 기록이 많이 보이는 것도 이러한 사실과 상통한다. 안압지의 식해 부찰목간들 중에 보이는 ‘고성해高城醢’란 오늘날에도 이 지역 일원에서 많이 만들어 먹는 ‘가자미 식해’로 추정된다. 안압지의 꼬리표 목간들을 통해,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신라 궁중의 조리법과 음식 문화까지도 연구할 수 있는 지평이 열린 셈이다.

이처럼 목간의 기록 내용은 단편적인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당대의 살아 있는 정보와 어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역사 연구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도가 매우 크다. 앞으로 목간은 자료 부족으로 허덕였던 고대사 연구를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 원동력이 될 것이 분명하다.

[참고문헌]

경상북도, 2016 『신라사대계』(1~30권)
한국고대사학회, 2017 『우리시대의 한국고대사 1, 2』, 주류성
젊은역사학자모임, 2017 『사이비역사와 한국고대사』, 역사비평사
한국역사연구회, 2016 『한국고대사산책』, 역사비평사

이용현, 2006 『한국목간기초연구』, 신서원
윤선대, 2007 『목간이 들려주는 백제이야기』, 주류성
朝鮮文化研究所編, 2007 『韓國出土木簡の世界』, 熊山閣
이경섭, 2013 『신라 목간의 세계』, 경인문화사
橋本繁, 2014 『韓國古代木簡の研究』, 吉川弘文館

※ 참고자료 열람

1.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총 30권) 인터넷 열람 주소(e-book)

▶ http://www.gb.go.kr/open_silguk/silla_history/main.do ◀

2. 강의 자료, 한국고대사학회 홈페이지(시민강좌)

▶ <http://www.koreaancienthistory.net> ◀

<MEMO>

<절취선>

2017년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시민강좌 <시민 참여> 질문지

- *강의 내용을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기에 질문 내용을 작성해 주십시오.
- *질문지는 강사의 강의를 끝난 다음, 중간 휴식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